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효원인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 소망트리

2019.12.2.(월)~2020.1.10.(금)

여러분의 소원을 달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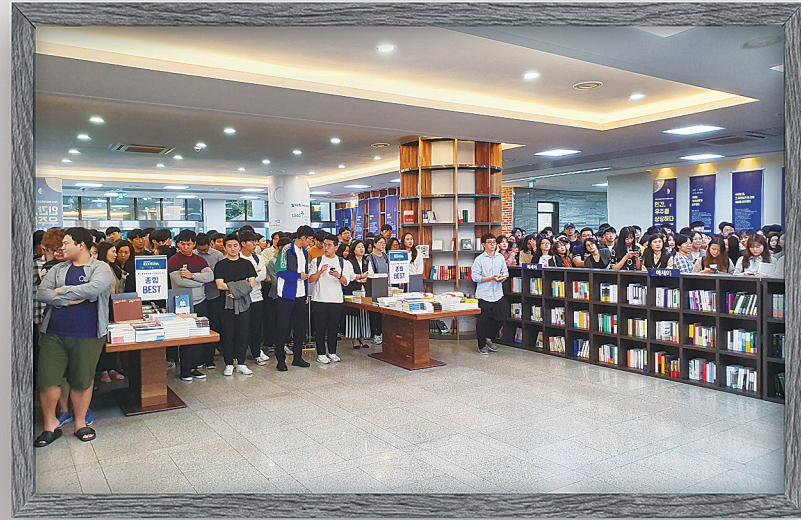
2020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소망이나
도서관에 간직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세요

- 참여장소 : 각 도서관 1층 로비
(중앙도서관, 새벽별도서관, 의생명과학도서관, 나노생명과학도서관)
- 참여대상 : 교내구성원 및 도서관 출입 일반인



똑똑,
문을 열다

2019년 도서구매지원행사



Vol. 47 2019. 12.

효원 도서관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서관소식지

CONTENTS

-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REN]책읽는 대학 사업
- 06 특집 기사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 08 아름다운 인터뷰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작
- 12 효원인 감동공유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 14 교수의 서재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 16 여기 issue 시대적 요구 검찰개혁
- 18 통계로 보는 도서관 효원인이 많이 읽은 전자책
- 20 #발견 #이곳 부산을 담은 전문 도서관
- 22 시선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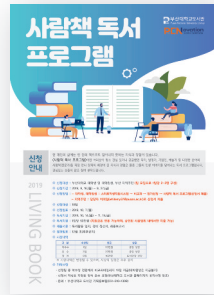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수상 발행일 2019. 12. 31.
편집 김미선, 전태경, 정개수, 최덕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libplan@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REN] 책 읽는 대학이 궁금해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REN)의 하나로 <책 읽는 대학>을 추진하고 있다. <책 읽는 대학>은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으로도 진행해왔으며,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10년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서문화사업이라 할 수 있다. <책 읽는 대학>사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서관련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기본 교양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통합형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올해의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책 읽는 대학>사업을 지역주민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면서, 지역주민까지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도서관은 물론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 도서관에서 진행한 올해의 <책 읽는 대학>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책 독서 프로그램

2018년에 신설된 독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전문가)을 직접 만나 창작 또는 발명의 배경이 된 지식과 경험은 물론, 인생 이야기 까지 담아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선정대상을 10개 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12월 20일(금)에 활동한 내용에 대한 발표대회를 열었다.

참가대상
부산대학교 재학생 및 지역주민
(팀 모집으로 1팀당 2~3명 구성)

활동기간
2019. 10. 15.(화) ~ 11. 24.(일)
(신청 : 2019. 09. 16.(월) ~ 10. 09.(금))

선정대상
총 10팀 25명(신청현황 : 14팀 33명)

독서지원
500만원(1팀당 50만원, 10팀)

활동발표대회
2019. 12. 20.(금) 10:00~

구분	상금	상훈
최우수상 (1팀)	50만원	총장 상장
우수상 (3팀)	30만원	
장려상 (6팀)	10만원	도서관장 상장

※ 비교과 마일리지 최대 20점 (학부생만 해당)



독후감 공모전 “독서의 희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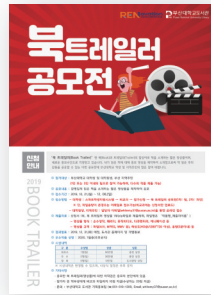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무료 배포하는 도서 중 1권을 수령하고 자유롭게 독서한 후 독후감을 제출하는 공모전으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공모전 중 가장 인기있는 공모전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독후감 대상 도서의 선정에 각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과학, 문학, 사회 및 인문분야의 도서를 각 3권씩 총 12권을 선정하여 무료배포했다.

참가대상
부산대학교 재학생 및 지역주민

활동기간
2019. 09. 09.(월) ~ 10. 20.(일)

구분	상금	상훈
최우수상 (1명)	50만원	총장 상장
우수상 (2명)	30만원	
장려상 (5명)	10만원	도서관장 상장

※ 비교과 마일리지 최대 20점 (학부생만 해당)



북트레일러 공모전

2019년에 신설된 독서 프로그램으로, 북 트레일러란 북(Book)과 트레일러(Trailer)의 합성어로 책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물을 말한다.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함으로써 책 읽은 후의 감동을 공유할 수 있다.

응모주제
감명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응모

참가대상
부산대학교 재학생 및 지역주민 (1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으로 참여가능하며, 다수의 작품 제출 가능)

응모기간
2019. 10. 21.(월) ~ 12. 08.(일)

구분	상금	상훈
최우수상 (1팀)	50만원	총장 상장
우수상 (2팀)	30만원	
장려상 (5팀)	10만원	도서관장 상장

※ 비교과 마일리지 최대 20점 (학부생만 해당)



저자와의 만남

유명작가 또는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명사를 초청하여 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는 2명의 작가(김진명, 박상영)가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참가자 중 학부생에게는 비교과 마일리지 3점을 지급한다.

<김진명 작가편>
개최일시
2019. 09. 19.(목) 15:00 ~ 17:00

개최장소
효원산학협동관 대회의실(101호)

참여대상
부산대 구성원 및 지역주민(선착순 입장)
※ 참가자 선착순 150명에게 도서(『직지』, 김진명 저) 증정

<박상영 작가편>
개최일시
2019. 11. 14.(목) 15:00 ~ 17:00

개최장소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참여대상
부산대 구성원 및 지역주민(선착순 입장)
※ 참가자 선착순 150명에게 도서(『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저)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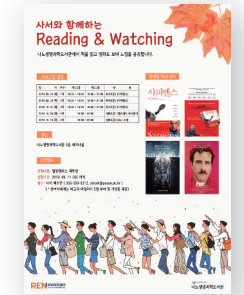


효원 감동나눔 책 읽기 전시회

학부생 도서 추천 프로그램인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와 추천의 글을 전시하여, 책 읽는 즐거움과 감동을 공유하는 전시회이다. 올해는 특별히 양산캠퍼스와 밀양캠퍼스에서도 동시에 전시회를 개최하여 캠퍼스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전시회 소감을 받은 후 100명(3개 캠퍼스 통합)을 추첨하여 전시도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명
<효원 감동 나눔 책 읽기> 일곱 번째 이야기
전시내용
2018년도 2학기과 2019년도 1학기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 100종과 추천의 글 전시

전시기간 및 장소
2019. 12. 18.(수) ~ 2020. 01. 17.(금)
중앙도서관(부산) 1층 복합문화공간
의생명과학도서관(양산) 1층 로비
나노생명과학도서관(밀양) 3층 아뜨리움
※ 전시기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나노생명과학도서관] 사서와 함께하는 Reading & Watching

밀양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책과 영화를 함께 보며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밀양캠퍼스 재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도서 『사피엔스』와 영화 『월요일이 사라졌다』, 『Her(그녀)』를 보면서 9월부터 10월에 걸쳐 화·목요일에 독서토론과 영화토론을 진행하였다.

[REN] <책 읽는 대학> 과 관련하여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기획홍보팀 051-510-1309 또는 libplan@pusan.ac.kr으로 연락주세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본선대회

11월 16일(토) DRB 사회공헌플랫폼 Campus D 고촌홀에서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본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은 '김진재 SF 어워드'는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발굴·육성할 목적으로 부산대와 DRB가 공동 개최한 SF 창작콘텐츠 공모전이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만 27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넉 달간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를 주제로 한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는 △문학(사나리오 시놉시스, 단편소설, 에세이) △그림(웹툰, 단편만화) △영상(UCC, 광고, 단편영화) 등 3개 부문에서 총 65개 작품이 출품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응모 작품수가 작년 11편에서 올해 26편으로 높아진 것이 눈에 띄는 변화였다. 치열한 예선심사를 거쳐 성인 3편, 청소년 3편 등 최종 6편의 작품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예선심사와 본선대회 발표심사를 통해 성인 부문에서 △대상-전희성(일반인, 단편소설) △최우수상-정지현·이정하(국민대 미술학부 회화전공, 단편영화) △우수상-서진교(부산대 철학과, 단편소설), 청소년 부문에서 △대상-신준우·김지희·이원석·주치현(부산사대부고, 단편영화) △최우수상-이항미(부산 양덕 여중, 웹툰) △우수상-이은용(대전 관저중, 단편소설)이 선정되었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부산대 총장상과 더불어 성인부문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청소년 부문 대상 15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KIM JIN JAE

SF AWARD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본선대회 2019.11.16(토) Campus D 고촌홀

대한민국 청소년과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응원하며 부산대와 그 장을 열다!

2018년 1월, 부산대학교는 김정구 국회의원인 김세연 의원, 지역기업인 (주)DRB 동일 및 동일고무벨트(주)와 공동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과학 및 SF창작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과학독서 문화사업'의 하나로 김진재 SF 어워드를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김진재 SF 어워드'는 혁신적인 사고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하여 미래 청년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부산 출신의 큰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김진재 회장의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 청소년 및 청년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KIM JIN JAE
SF
AWARD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자 인터뷰

성인 부문 수상작

대상
Mr. 지구

전희성 (일반인)
응모분야 | 문학 - 단편소설




작품소개 ▶

사회의 가장 외로운 곳에서 싸우는 공시생과 것처럼 저마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종말'이라는 일견 어처구니없는 재앙이 닥친 순간 그들의 거주공간이 우주선으로 변형되어 우주로 발사된다.

그것은 옛 학자들이 미래 종말에 대비해 만들어 둔 것. 생존과 동시에 우주 난민이 된 이들은 뒤늦게 온 누군가에 의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심사평 ▶

거칠지만 신선한 발상이 돋보였다. 발표에서 사려깊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문장 등 기본기를 더 다듬어서 앞으로 작가로서 긴 호흡으로 정진하기를 바란다.

수상소감 ▶

해보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묻으니 해야만 하는 말이 되더군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들을 필요 없어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저조차도 포기할 뻔했습니다. 타인은 비웃음으로, 친구들은 의심으로, 부모님은 걱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했기'에 어느새 멈출 수 없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잡은 이 역시 저였습니다. 결국 내가 아니면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더군요. 다행히 이 말을 '들길' 원했던 누군가 덕에, 이 기회를 통해 첫 마디를 온전히 뱉었습니다. 뽀고 나니 그제야 나를 걱정하고 의심하고 비웃은 건 부모님도 친구도 타인도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한 문장도 완성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럭저럭 괜찮은 한 문단이라도 완성해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단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들리게 되는 날, 제 작은 바람이 이뤄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 최근에 차에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상급 덕에 마음도 편히 같았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메타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남겨진 자들

정지현, 이정하 (국민대 미술학부 회화전공)
응모분야 | 영상 - 단편영화




작품소개 ▶

〈남겨진 자들〉은 〈변신〉에 SF적 상황과 한국 사회의 모습을 섞은 이야기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는 대탈출 시대, 주인공 은영은 오염인 판정을 받는다.

반대로 은주는 병에 걸리지 않고 취업을 해서 화성으로 이주에 성공한다. 은영의 몸은 갈수록 외계인같이 변해가는데, 은영을 다시 만난 은주는 은영을 어떻게 대할까?

심사평 ▶

제한된 시간과 제작 예산 안에서 상당히 훌륭하게 결과물을 만들었다. 주제와 설정 등에서 드러나는 문제의식이 돋보이며 향후 영상작업을 계속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내리라 기대된다.

수상소감 ▶

정지현
우선 저희 작품을 좋게 봐주시고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상했을 때도 행복했지만, 멋진 분들과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새로운 일에도 많이 도전하고 부딪쳐야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기에 그런 경험 자체가 재밌게 느껴졌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작부터 발표, 질문에 답하는 시간 까지 이렇게 모든 과정에 애정을 느낀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하

제가 두 번째로 찍어본 단편영화입니다. 아직 영화를 많이 찍어본 것은 아니지만 영화를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큰 배움이 많았습니다. '남겨진 자들'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익힌 것을 모두 쏟아 부었다고 자신 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은영은 은주에게 '그냥 너의 기억속의 나로 기억 해달라'고 말합니다. 은영과 은주는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 으니까요. 공모전이 끝나고 우리의 고민을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억 속에 남겨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손잡을 수 있는 사이가 되길 바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수상
은혜

서진교 (부산대 철학과)
응모분야 | 문학 - 단편소설




작품소개 ▶

우주개발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배경은 2060년 부근으로 당시 지구의 특징은 온난화와 신체 개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들 사이의 갈등이 우주개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작품으로 풀어보았다.

심사평 ▶

기본기와 캐릭터 설정, 구성 등 전반적인 면모들이 탄탄하였다. 다만,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앞으로 좋은 SF 작가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니 계속 정진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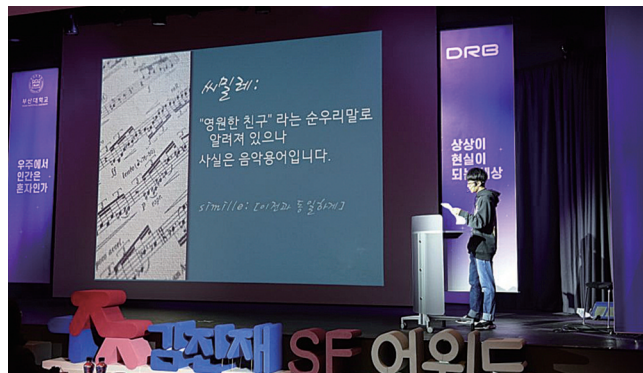
수상소감 ▶

어릴 적부터 SF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라는 소설을 정말 좋아해서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구분은 가능한가?' 따위의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생각들에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쁩니다. 분량의 한계 때문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언젠가 다시 이야기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부문 수상작

**대상
시밀레**

신준우·김지하·이원석·주치현
(부산사대부고)
응모분야 | 영상 - 단편영화



팀원이 모두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때문에 각자의 학업과 진로 관련으로 바빴죠. 그 와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고 스케줄을 맞춰가며 만든 영상입니다.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긴장도 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진이 빠지기도 했지만 다들 SF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만나서 토론하고 촬영, 편집하는 과정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멋진 결과까지 받게 되니 정말 기억에 남을 추억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최우수상
언제나 빛나리**

이향미(부산 양덕여중)
응모분야 | 그림 - 웹툰



작품소개 ▶
오래전 죽은 자신의 인간 친구와 그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600년 동안 지구에 머물던 외계인이 결국은 재회하게 되는 서로 다른 종족의 우정 이야기를 스크롤 뷰 형식의 만화로 그려내 보았다.

심사평 ▶
이야기 구성과 작화 등이 양호하였다. 본선대회 발표에서 뚜렷한 주관을 표현한 점도 좋았다. 앞날이 기대되는 잠재성이 풍부한 응모자이다.

수상소감 ▶
인생 처음으로 웹툰을 그려서 받은 첫번째 상이라 저에게는 의미가 큰 공

작품소개 ▶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까지는 관찰만 가능했던 심우주에 직접 사람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자 대 우주 시대가 열린다.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주 개발과 특히 새로운 행성 탐사에 힘을 쏟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생명 거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훌륭한 행성을 발견하고 '영원한 친구'라는 의미의 '시밀레'라고 이름 붙이고 유인 탐사선 '아미고'호를 보낸다. 지상에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와 탐사선의 파일럿은 어릴 적부터 같이 꿈을 키워오던 죽마고우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을 두 친구는 함께 극복해낸다.

심사평 ▶
작품의 주제가 양호하고 제작 과정의 협동성과 제한된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연출로 이어간 노력이 돋보인다. 앞으로도 SF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길 바란다.

수상소감 ▶
결과를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많이 부족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모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작품 만드는 데 도움 주신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공모전에 참여하고,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상상도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공모전에 제출할 작품을 만들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모두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수상
마지막 인간
(A last person)**

이은용(대전 관저중)
응모분야 | 문학 - 단편소설



작품소개 ▶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이중적인 답변을 위해 기획되었다. 2100~2120년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숨겨졌던 행성으로 이동하는 이들과 그런 상황을 거부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렸다.

심사평 ▶
주제도 좋고 이야기 전개 아이디어가 좋았다. 다만 설정 등에서 좀 더 공부하고 어떻게 작품에 반영할지 고민한다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소감 ▶
흥미를 가지고 있던 SF 장르의 작품을 제가 처음으로 직접 쓰게 된 계기

가 된 것이 제 1회 김진재 SF 어워드였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 SF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작품들을 많이 접하던 차에 2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출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정보를 찾아보고, 과학적으로도 학습해가며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고, 작품 스토리를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작품을 쓰고,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발표의 기회가 있었기에 다른 공모전들 보다 훨씬 의미 있는 수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SF 장르의 많은 작품들을 써내려갈 생각입니다. 그 시작이 되어준 김진재 SF 어워드를 개최해주신 주최측과 공모전 준비에 응원과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를 마무리하며....

이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ssfc.pusan.ac.kr>) 및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내 SF Maker Space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며, 향후 수상작들을 모아 수상작품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날 본선대회에 앞서 공모전의 열기와 분위기 확산을 위한 부대행사로 지난 10월 중앙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서 'PNU SF 데이'를 개최했다. 김상욱 교수(경희대 물리학과)와 박상준 회장(한국SF협회)을 초청한 강연회는 대학과 지역민 18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SF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김진재 SF 어워드는 앞으로도 SF분야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젊은 창작자 발굴을 위하여 공모전 및 부대 행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에 보여줄 김진재 SF 어워드의 새로운 주제와 모습을 기대한다.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1820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우리 도서관에서는 2012년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효원인 감동공유 :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서를 받고 있다. 매 학기마다 제출된 추천서 중 50편의 우수 추천서를 선정한다.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선정된 우수 추천서 중 가장 많이 추천된 작가는 유시민 작가였다. 추천된 유시민 작가의 책을 소개하고 우수 추천서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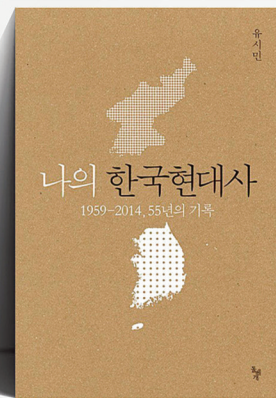
사진출처
채널에스

나의 한국 현대사

유시민 | 돌베개 | 2014 | 423 p.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951.07 유59ㄴ]
추천인 | 박정우 (역사교육과 15학번)
선정연도 | 2015년

내가 살아온 역사를 기록하다, 나만의 한국 현대사

1959년생인 작가의 굴곡 많았던 삶을 그대로 한국 현대사와 관통시킨 역사. 이 책에 대한 나의 평가는 바로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자기 시대의 삶을 자기가 역사가가 되어 준엄한 붓을 휘두르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그런 당대사는 사실은 가장 주관적일 수 있으면서도 가장 현실에 가까울 수 있어 또한 객관적이다. 이 책을 그저 재미로 읽든, 작가가 좋아서 읽든, 현대사에 대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읽든 결국 이 책 최고의 미덕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맞볼 수 있는 즐거움에 있을 것이다...(후략)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 생각의길 | 2013 | 339 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4 유59ㅇ]
추천인 | 최은정 (언어정보학과 11학번)
선정연도 | 2016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중략) 이 책은 유시민이 처음으로 낸 자전적 에세이인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평소에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막연하게 느끼던 것을 담백하고 간결하게 풀어냅니다. 작가의 이 담담한 속고개 느껴지는 문장을 읽다 보면, 읽다가 나도 잠시 멈추어 생각하며 따라가다 보면, 그 내용이 지침이나 교훈이 전혀 아님에도 오히려 위로와 치유가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중략)...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기 전, 현재 학생인 학우들과 꼭 함께 읽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깨어있는 삶을 위해 이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나답게 살고, 더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의 독서

유시민 | 웅진지식하우스 | 2009 | 319 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HDM 028.5 유59ㄷ]
추천인 | 장성우 (식품자원경제학과 13학번)
선정연도 | 2017년

위대한 지성들의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유시민식으로 해석하다

...(중략)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총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유시민 작가의 글 전개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요약과 발제를 통해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어떠한 책을 읽고 감상평이나 비평문을 쓸 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유시민 작가가 20대 청춘일 때 느낀 생각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청춘의 독서 한 권을 읽음으로써 여러 권의 고전들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자신만의 철학, 사상을 정립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청춘에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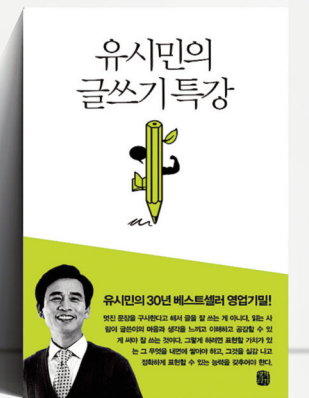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유시민 | 생각의길 | 2015 | 292 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08 유59ㅇ]
추천인 | 선인혜 (문헌정보학과 18학번)
선정연도 | 2019년

글쓰기는 수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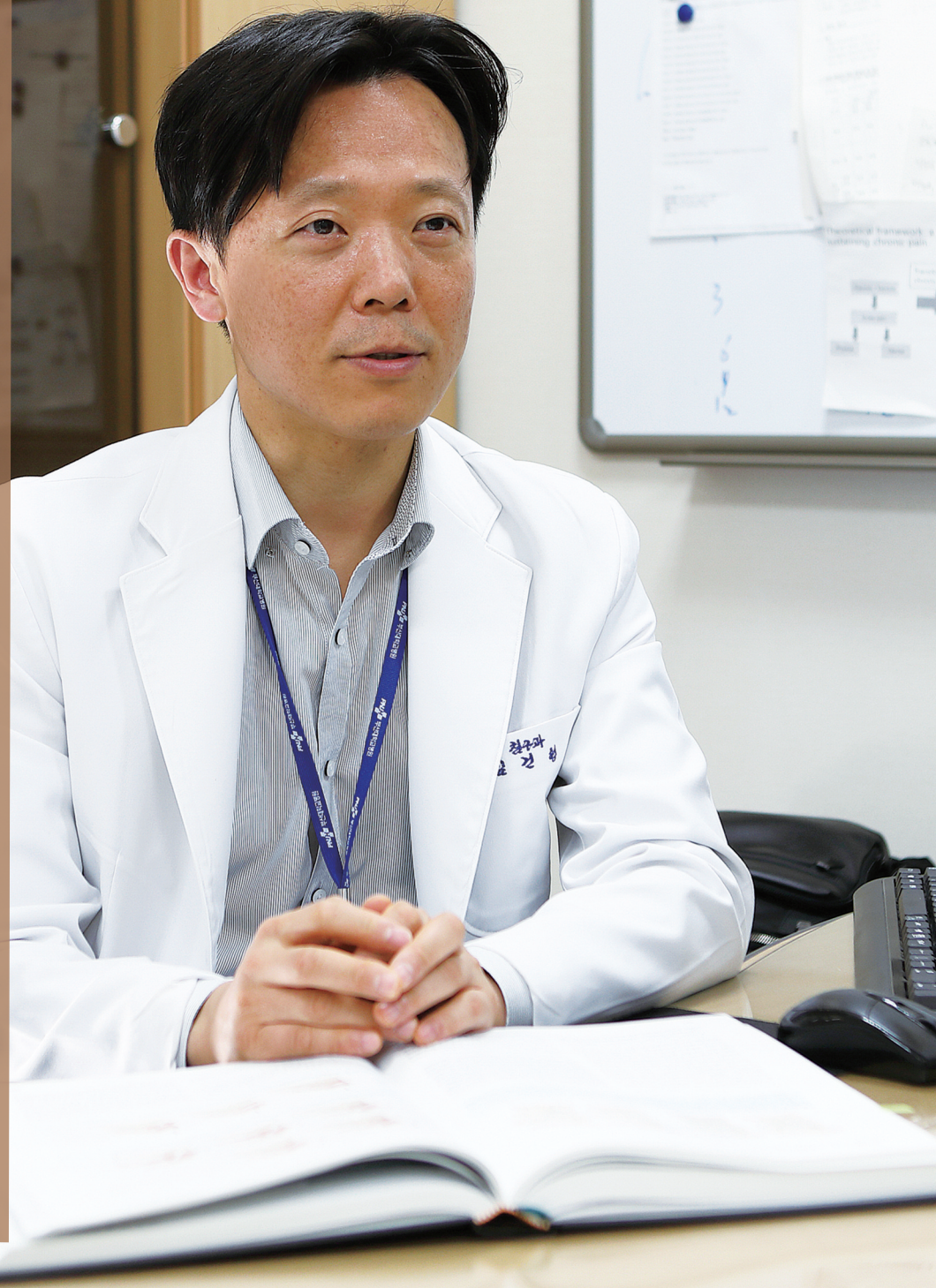
저자는 내가 무언가 주장할 때 그것이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그냥 취향 고백인지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처럼 무분별한 혐오발언이 많은 때가 또 있었을까. 우리가 보는 댓글들은 모두 주장하는 글처럼 보이지만 읽어보면 그냥 분노 혹은 혐오로 가득찬 글도 매우 많다. 중요한 것은 그 댓글을 쓴 사람이 자신이 주장을 하고있는지 취향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글쓰기에 관해 무지하고 알고고도 하지않기때문이다. 글쓰기를 배운다는 것은 논리를 펼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중략)...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은 글쓰기의 기술적 측면과 내면 수양적 측면 모두를 잘 담아낸 책이다. 자기 성찰이나 수양에 관심이 있는 학우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읽어보면 작은 변화가 시작될 지도 모른다. 걱정하고 글쓰기에 뛰어들 학우에게는 당연히 적극 추천하는 책이다....(후략)



나의 서재를 공개 합니다

김건형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정된 장소에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서재 구성이나 관리는 따로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책을 다 읽은 후 소감, 메모를 책 앞 표지 안 쪽 공란에 적어 놓거나 소셜네트워크에 올려 두기도 합니다.



“한의학이 현대 사회 건강과 질병 분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관련된 책과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진료를 병행하는 임상 교원이라, 진득하게 서재에 앉아 있긴 어렵습니다. 아침, 저녁 전철로 병원에 출근할 때 잠시라도 책을 펼쳐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가족들이 잠들고 나면 식탁 테이블에 앉아 1-2시간 책이나 논문 등을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책이나 논문을 손에 잡히는 곳에 두고 잠시라도 잠이 날 때 보려고 하지만 책가방에서 한 번도 책을 꺼내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하루 뭐 했나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인 한의학 전공으로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현대 보건의료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한의학의 임상적 가치를 탐색하는 데 주요 관심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과 유관한 분야의 책을 위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고전의 경우, 번역 완성도가 높은 책이 출간될 때마다 수집해서 수업 준비에 활용합니다. 완전히 한글화된 것은 아니지만 한문 특성 상 읽는 방식에 따라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한 한문 고전에 능숙한 선생님들의 책은 지금 당장 읽지 못하더라도 수집합

니다. 고전 문헌이 작성된 당대의 사회적, 과학 기술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저술자의 원래 의도와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야로는 제 공부가 부족해서, 동아시아 과학사 특히 전통 의학에 대한 과학사 서적들을 가능한 수집하고 읽으려 합니다.

역학(epidemiology) 분야 역시 제 주요 관심사입니다. 역학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의 건강 실태 및 그와 관련된 요인의 분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개인 수준이 아닌 집단 수준의 건강 연구에 역학은 필수적인 도구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고유한 학문 영역입니다. “한의학이 현대 사회 건강과 질병 분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관련된 책과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서재 구성이나 관리는 따로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책을 다 읽은 후 소감, 메모를 책 앞 표지 안 쪽 공란에 적어 놓거나 소셜네트워크에 올려 두기도 합니다. 한의학, 역학 관련 책의 내용은 발표나 수업 때 주로 활용합니다.

책 종류도 따로 가리진 않습니다. 다독하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책을 반복해서 읽는 편입니다. 김동식 작가의 소설은 반전의 재미가 있어서 즐겁습니다. 최근 좋은 교양 과학 서적이 많이 나와서, 저자들이 어떤 전문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지 흥미롭게 보곤 합니다. 천병희 교수님이 번역한 그리스 고전도 의외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 일인데도 무척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의 인간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무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김상욱 교수의 「김상욱의 과학공부」 중 한 구절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운동이라는 물리학 주제를 삶의 방식과 매끄럽게 연결시킨 서술 에도, 담긴 메시지에도 무척 감탄했습니다.

“혼자서 외로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합류하는 두 번째 사람이 되어라.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이 첫 번째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바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운동이 된다.”

「김상욱의 과학공부, p.170」

**[교수의 서재]에서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교수의 서재]는 분야별(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서재를 통해 그 분야의 독서법과 독서세계를 경험해보고, 사기에 꽂힌 책도 함께 만나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교수님에게 서재는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교수님의 독서와 인생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수의 서재]에 칼럼을 써주시는 교수님께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함께 드립니다.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A4 2장 정도)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시대적 요구 검찰개혁



B O O K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문재인, 김인회 지음. 오월의봄. 2011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320.092 문72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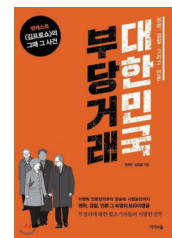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문재인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인 김인회가 만나 참여정부 하에서의 검찰개혁 문제를 분석하였다. 검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해왔는지 시대별로 정리하고,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강금실, 천정배, 문희상, 김선수 등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풍부하게 실어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실패했는지 밝혀냈다. 또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증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왜 꼭 해야만 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짚어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최강욱, 김의겸, 금태섭, 이정렬, 김선수 지음. 창비. 2017 / 법학도서관 4층 단행본 BDM 345.01 최11ㄱ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을 마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찰 간부급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이런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화답처럼 ‘항명 검사’로 이름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검찰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어떤 개혁이 올바른 개혁인지 살피기 위해 최강욱 변호사가 오랫동안 검찰과 가까운 곳에서, 혹은 검찰조직 안에서 일해온 전문가들과 만났다. 『권력과 검찰』에서는 검찰에 오랫동안 출입했던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 검사 출신 국회의원 금태섭, 판사 출신 법조인 이정렬,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김선수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검찰과 검찰 개혁을 들여다본다. 자신도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사법원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로서 최강욱은 날카로운 질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대담을 이끌어간다.



팟캐스트 김프로슈의 그때 그사건 대한민국 부당거래: 권력, 검찰 그리고 언론

김요한, 김정필 지음. 지식의숲. 2019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320.951 김66ㄹA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다 알고 있다고? 과연 그런가? 무엇을 감추었는지 보라! 권력은 누가 쥐고 있든, 그 자체로 견제받아야 할 괴물이다. 당시 SBS와 한겨레에서 법조계 출입기자였던 저자들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 언론이 엮인 사건들을 취재해왔다. 국가 기관 안팎으로 벌어진 사건과 연루된 이들을 추적했지만,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만큼 보도할 수 없었다. 각각의 사건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파헤친다. 드러나지 않았던 면면을 팩트로 풀어가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게 해줄 것이다. 하루가 멀다고 이슈가 쏟아져 나오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반복되는 느낌이다. 매번 주인공이 바뀌고 사건은 제각각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충격적인 사건은 일정하게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 사법부, 검찰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권력 기관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도해야만 하는 언론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잘 드는 칼, 검찰.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다 보니 그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검찰’과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자료를 소개한다.

M O V I E



대국민 조작 이벤트 부당거래

황정민, 류승범, 유해진 출연, 류승완 감독. 아트서비스. 2011. 119분 /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51 320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연쇄 살인 사건. 계속된 검거 실패로 대통령이 직접 사건에 개입하고, 수사 도중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다. 가짜 범인인 ‘배우’를 만들어 사건을 종결짓는 것! 이번 사건의 담당으로 지목된 광역수사대 에이스 최철기.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줄도, 뺨도 없던 그는 승진을 보장해주겠다는 상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건에 뛰어들게 된다. 그는 스폰서인 해동 장석구를 이용해 ‘배우’를 세우고 대국민을 상대로 한 이벤트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다.

한편, 부동산 업계의 큰 손 태경 김희장으로부터 스폰을 받는 검사 주양은 최철기가 입찰 비리건으로 김희장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에 분개해 그의 뒤를 캐기 시작한다. 때마침 자신에게 배정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조사하던 주양은 조사 과정에서 최철기와 장석구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최철기에게 또 다른 거래를 제안하는데.. 각본쓰는 검사, 연출하는 경찰, 연기하는 스폰서.. 더럽게 역이고 지독하게 꼬인 그들의 거래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더 킹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출연, 한재림 감독. 2017. 134분 / 구입 진행 중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 나게 살고 싶었던 박태수는 우여곡절 끝에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을 만나 핵심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하게 된다. 때에 맞춰 아껴둔 사건을 터트리고, 또 적절한 시점에서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리기만 하면, 모든 건 이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검찰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대통령이 당선되며 위기를 겪는 듯 했으나, 대통령이 탄핵과 레임덕으로 허덕이는 사이 한강식 일당은 다시 기회를 잡는다.

그간 아껴둔 사건 파일을 터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퇴임 대통령의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새로운 정권의 믿음직한 칼, 아니 충직한 개가 되길 마다하지 않는다. 정권에 맞게 얼굴을 바꿔가며 권력을 누려온 이들의 시대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의 왜곡된 진실 감추기 소수의견

윤계상, 유해진, 김육빈 출연, 김성제 감독. 2017. 126분 /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51 716

지방대 출신, 학벌 후지고, 경력도 후진 2년차 국선변호사 윤진원.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건 철거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인에게도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검찰,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오는 신문기자 수경. 진원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선배인 이훈전문 변호사 대석에게 사건을 함께 파헤칠 것을 제안한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진압 중에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국가에게 잘못을 인정받기 위해 진원과 대석은, 국민참여재판 및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재미로 알아보는 통계

효원인이 많이 읽은 전자책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의 장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전자책의 이용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의 이용형태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이에 우리 도서관에 소장 중인 국내 전자책에 대해 다양한 이용형태를 통계로 알아보려고 한다.

통계기준
대상 | 국내 eBook
(교보문고, yes24, 북큐브)
기간 | 당해년 1월 ~ 12월

도서보유량 (증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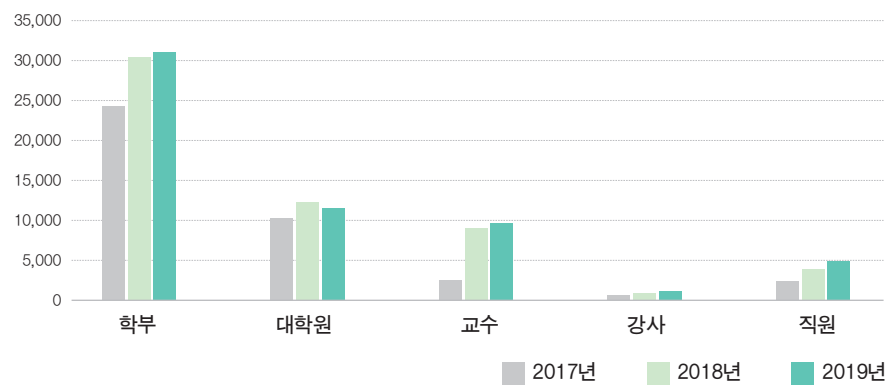
	KYOBO 교보문고		YES24.COM		BOOKCUBE 전자책도서관		책수합계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2017년	9,811	15,156	3,021	6,713	0	0	21,869
2018년	13,678	21,111	3,021	6,713	0	0	27,824
2019년	13,678	21,111	3,021	6,713	2,468	3,938	30,292

매해 입찰을 통해 단일 전자책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사유로 인해 매해 단일업체의 도서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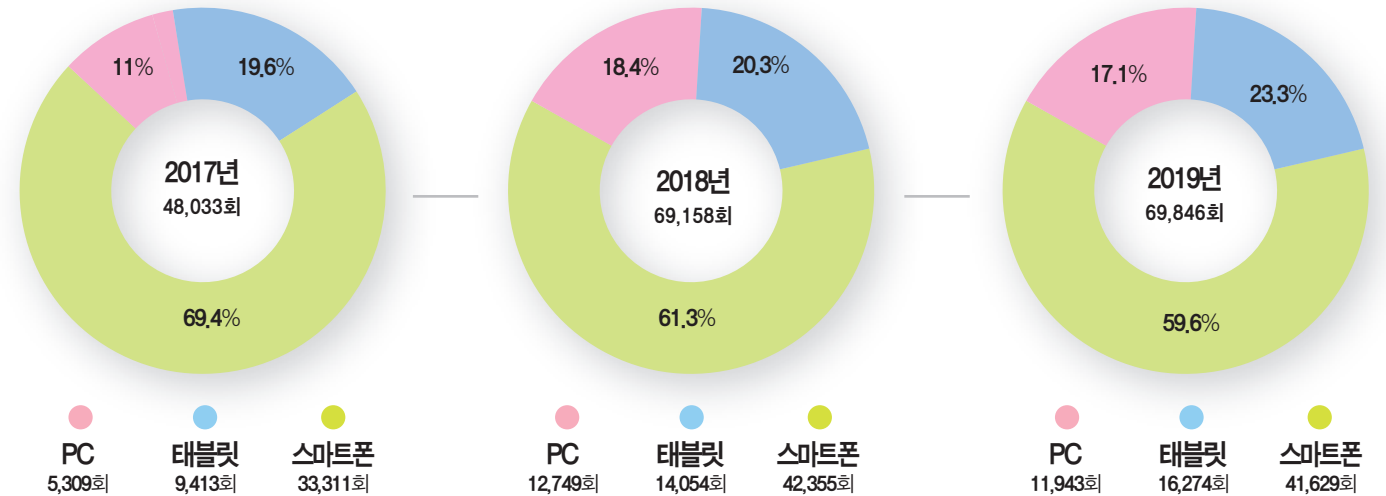
최근 3년간 대출 현황 (신분별)

	신분별						합계
	학부	대학원	교수	강사	직원	기타	
2017년	25,411	11,576	2,738	720	3,458	4,130	48,033
비율	52.9	24.1	5.7	1.5	7.2	8.6	100
2018년	31,673	13,553	9,856	1,037	5,118	7,921	69,158
비율	45.8	19.6	14.3	1.5	7.4	11.4	100
2019년	32,220	12,293	10,173	1,153	5,703	8,304	69,846
비율	46.1	17.6	14.6	1.7	8.2	11.8	100

매해 증가하던 전자책 이용률이 2019년에는 작년과 유사한 대출량을 기록하였다. 최근의 인쇄본을 포함한 전체 도서의 이용률 감소 추세와 연동된 결과로 보여진다.



뷰어별 대출 현황



2019년 전자책 대출 베스트 5

01
실어증입니다, 일하기싫어증
양경수 / 오우아
2016
대출횟수 324

02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 문학동네
2015
대출횟수 295

03
소중한 것은 모두 일상 속에 있다
아마사타 히데코 / 이문
2017
대출횟수 277

04
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 / 문학동네
2018
대출횟수 272

05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 문학동네
2013
대출횟수 255

영화, 해양 부산을 담은 전문도서관

모든 분야의 책을 수집·제공하고 있는 일반 도서관과 달리, 특정 분야 전문 서적과 자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도서관을 전문도서관이라 한다.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이자 상징인 영화, 해양 분야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전문도서관을 찾아가 보았다.



영화의전당 영화전문자료실



영화의전당의 영화전문자료실은 지난 1999년 시네마테크¹⁾ 부산 개원 이래, 영화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며, 현재 총 29,700여 종에 달하는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국내외 발매 영상자료 9,165종, 부산국제영화제 역대 출품작 영상자료 3,840종 등의 영상자료는 물론 영화관련 정기간행물, 단행본, 전 세계 영화제 카탈로그, 관련 학위논문, 부산국제영화제 역대 출품작 시나리오 등 16,000여 종의 문헌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 부산분원이 설치되어 한국고전영화와 독립영화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VOD 전용 열람석을 통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3,823편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단, 모든 자료는 자료실 내부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시네마테크부산의 역대 기획전 관련자료 및 부산국제영화제 역대 출품작 자료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자료로 이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료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모니터(TV), 헤드폰이 구비된 1인실 10석, 2인실 5석, 5인실 1석의 멀티미디어실과 문헌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28석의 열람석에서 영화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영화에 관심 있거나 영화를 공부하거나,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영화인들에게 평소 접할 수 없는 관련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영화전문자료실을 추천한다.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전당 비프홀 2층

운영시간
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10:00~20:00)

휴무
월요일,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1) 시네마테크(cinéma)는 영화보관소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영화가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하에 소실 되는 것을 우려해 필름 및 영상관련 자료들을 수집, 보관하고 상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네마테크부산은 1999년 8월 24일 전용관 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의 시네마테크로 출범하였고, 희귀한 고전 영화, 수준 높은 예술·독립영화 상영은 물론 2007년부터는 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Busan Asia Film Archive)를 설립하여 아시아 지역의 고전과 동시대 영화들을 수집, 보존해오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은 해양문화, 해양역사·영토, 해양관련 도록 및 해양의 모든 분야 자료와 박물관학, 고고학 관련 자료 등 국내·외 전문 도서, 학술지 및 디지털매체 등을 수집·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해양문화와 박물관 관련 정보들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현재 해양사, 해양영토, 해양문학 분야의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실에는 해양테마서고 및 일반서고에 해양문화 및 박물관 관련 도서 37,000여 권, 어린이 해양도서 7,000여 권과 바다를 소재로 한 비도서(DVD 등) 2,000여 점을 비치하고 있다. 단, 모든 자료는 자료실 내부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이라는 특색을 지닌 해양도서관은 2019년 여름, 이용자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여 바다를 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용자 휴게 및 열람 공간을 확장하고, 입구에 웅장한 벽면서가를 새롭게 구성함은

물론 기존 서가 재배치를 통해 더욱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 공간에 해양관련 주제의 도서와 기록,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전시하는 라키비움²⁾을 조성함으로써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전문도서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1층

운영시간
화-일 09:00 ~ 18:00

휴무
월요일, 공휴일

2) 도서관(Library) + 기록관(Archives) + 박물관(Museum)

Special Focus | 시선집중 |



| 「벽사(碧史)의 서재(書齋)」 개관 |

한국 고전학과 역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벽사(碧史) 이우성(李佑成, 1925~2017) 선생이 생전에 아끼던 유품 200여 점을 기증받아 「벽사(碧史)의 서재(書齋)」 전시관을 마련하고, 9월 25일 밀양캠퍼스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나노생명과학도서관 5층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벽사 이우성 선생 친필 원고, 기문 인장, 왕희지·김상숙·신우·김정희의 작품 등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우성 선생은 부산대 도서관에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적(漢籍) 3,000여 책과 장서 10,000여 책을 기증하였다. 선생의 고향인 밀양에 위치한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 해당 고문헌으로 구성된 '쌍매당문고'와 '벽사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전시관 개관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인 '경남실학거점화사업'의 일환으로 경남실학 독서토론 아카데미, 경남실학 원전 집중강독, 경남실학의 산실, 답사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었다.



| 브라운백 세미나 |

부산대 도서관은 지난 2018년부터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학습과 공유를 위한 토론의 자리로 브라운백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교내 도서관 직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브라운백 세미나를 9월부터 <부산지역 국립대학 도서관 간 자원공유 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여 부울경 및 제주지역 대학 도서관 실무자를 초청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10월 16일 강연자로 초청된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은 '로봇 프루프한 당신의 활약'이란 주제로 도서관과 사서가 시민의 삶을 복돋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 하였다.



| 성공적인 논문 투고 전략 워크숍 |

10월 16일 교내 기계관 대강당 2층에서 Theresa Kueckmann(Wiley 저널 편집장)이 'Opening the Editor's Black Box: Insider Tips for Successful Publication'을 주제로 논문 투고 전략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대학원생, 교수, 연구자,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하여 157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논문 작성 팁을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2019년 도서관 화재대응훈련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정에 따라 10월 29일 11시에 중앙도서관에서 화재대응 훈련이 있었다. 도서관 실내에서 발생한 모의 화재 상황에 따라 직원들은 신속하게 학생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시범을 보였다. 도서관은 수시로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 마련에 힘쓰기로 하였다.



| '대도시의 사랑법'의 저자-박상영 작가와의 만남 |

11월 14일,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청춘의 사랑과 이별을 그린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의 저자 박상영 작가를 초청해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주목받는 젊은 작가인 박상영 작가는 가을을 맞은 캠퍼스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2019년, 현재형의 청춘들이 겪는 사랑과 연애, 이별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이날 강연 참석자 선착순 150명에게 박상영 작가의 도서 『대도시의 사랑법』을 나눠주는 증정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 2019 세상의 모든 시학 |

부산대 도서관은 Poetica in PNU와 공동주관으로 2015년부터 <세상의 모든 시학>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여섯 개의 눈, 여섯 가지 詩學'이라는 주제 아래 학기 중 매월 4주차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12월 6일에 열린 35강은 2019년 마지막 강의로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렸다. '장자(莊子)의 나비,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성희 시인 특강과 권한준 바리톤의 음악이 어우러진 송년 음악회 형식으로 꾸며져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 속에 치러졌다.